

진화하는 황동하, KIA 5선발 경쟁 '불붙이다'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에서 KIA 선발 황동하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범경기 두산전 5이닝 1피안타 무실점 쾌투

부상 악몽 딛고 심기일전, 돋보인 위기 관리 능력 성과 3안타 침묵 KIA, 불펜진 무실점 릴레이로 0대0 무승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우완 황동하가 안정된 투구로 5선발 경쟁을 이어갔다.

황동하는 22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1피안타 4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146km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슬라이더·포크·커브를 고르게 섞었다. 총 투구수는 72개.

볼넷이 4개로 다소 많았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끌어낸 점은 긍정적이었다.

지난 16일 NC전(4이닝 6피안타 4실점)과 비교하면 위기 관리 능력은 한층 나아진 모습이었다.

초반부터 흐름을 잃지 않는 투구가 이어졌다. 1-2회를 각각 볼넷 1개씩 내주고도 실점 없이 넘

겼고, 3회에는 선두타자 안타 이후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4회에는 위기 관리가 돋보였다. 연속 볼넷으로 맞은 무사 1루에서 후속 타자들을 모두 뜬공으로 처리하며 실점을 차단했다.

5회는 삼자범퇴. 큰 흔들림 없이 5이닝을 책임졌다.

이날 후투로 황동하는 5선발 경쟁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현재 KIA 내부에서는 황동하와 김태형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동하는 2024시즌을 구원으로 시작해 선발로 보직을 전환하며 기회를 넓혀갔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25경기 103⅓이닝을 소화하며 5승 7패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 선발 자원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했다.

상승세를 타던 시점에서 불운이 겹쳤다.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요추 및 허벅지 골절

을 당하며 약 4개월간 전력에서 이탈했다. 9월 복귀 이후에는 불펜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비시즌 동안 선발 복귀를 준비한 그는 이번 시범경기에서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다. KIA 타선은 3안타에 그치며 침묵했다. 4회 김도영의 볼넷과 카스트로의 안타로 2사 1,3루 기회를 맞았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다. 김호영의 안타 행진도 9경기에서 멈췄다.

대신 마운드는 제 몫을 다했다.

두번째 투수로 나선 이형범과 이태양, 김시훈, 조상우가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9회 마운드에 오른 조상우는 2사 이후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으나 후속 타자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고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전날 경기에서는 KIA가 장단 14안타를 몰아치며 두산을 11대6으로 꺾었다. 윤도현이 연속 솔로포를 터뜨렸고, 정현창은 3회 상대 선발 최승용을 상대로 쓰러린 홈런을 기록했다.

3승 5패 2무를 기록 중인 KIA는 23일 대구 삼성과의 2연전을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다. /주홍철 기자

안산, 오예진, 김서하 태극마크 '명중'

〈광주은행 테니스양궁단〉

〈순천대〉

2026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여자 리커브 3, 4, 6위 국가대표 선발 30일부터 최종 1차 평가전, AG 도전

광주은행 테니스양궁단 안산과 오예진, 순천대 김서하가 2026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안산은 지난 20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끝난 2026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여자 리커브에서 배점 합계 68점을 획득 3위를 기록했다.

올해 광주은행에 입단한 실업 새내기 오예진도 배점 합계 54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에 이어 전남 양궁 기대주로 부상한 김서하(순천대)는 48점을 얻어 6위로 태극마크에 합류했다.

도쿄올림픽 여자단체전에서 안산과 금메달을 합작한 장민희(인천시청·70점)와 강재영(현대모비스·69점)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은 2026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2026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됐다.

1회전 종목별 상위 16명이 2-5회전 경쟁을 치른 이번 선발전 3회전에서 16명중 최하위를 기록한 임시현은 합계 30점으로 10위에 그쳐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여자부 5위는 이윤지(현대모비스·52점), 7위



지난 20일 열린 2026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여자 리커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안산(왼쪽부터), 오예진, 김서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테니스양궁단 제공

는 조아름(현대백화점·43점), 8위는 임해진(대전시체육회·42점)이 자리했다.

남자부에서는 김제덕(예천군청·67점)과 김우진(청주시청·64점)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우진, 김제덕과 함께 2026 광주세계양궁선수권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46점)이 6위를 기록하며 태극마크에 합류했다.

남자부 3위는 김선우(코오롱엑스텐보이즈·57점), 4위는 구본찬(현대제철·55점), 5위는 문균호(국군체육부대·55점), 7위는 김예찬(코오롱엑스텐보이즈·45점), 8위는 서민기(국군체

육부대·43점)가 각각 자리했다.

3차 선발전에서 종목별로 8위 안에 드는 선수가 올해 국가대표로 활동한다.

이번 선발전을 통해 확정된 국가대표 선수단은 23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최종 평가전에 대비한 집중 훈련에 돌입한다.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최종 엔트리는 오는 30일부터 4월3일까지 전북국체양궁장에서 열리는 1차 평가전과 4월13-17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되는 2차 평가전을 통해 확정된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김광희 광주테니스협회장이 2026 순천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장을 찾아 김남훈 감독을 비롯한 도로공사 선수단을 격려한 후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동반 성장 향한 '아름다운 동행'

광주시체육회, 순천오픈 테니스대회장 찾아 연구팀 도로공사팀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20일 호남권 중심 광역 오픈대회인 '2026 순천만국가정원배 순천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장을 찾아 광주 연구고 출전한 한국도로공사 테니스팀 선수단을 격려했다.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순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약 200여 명의 동호인 및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단식과 동호인부 등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특히 호남권을 비롯한 10여 개 시·군에서 참가해 지역 간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한국도로공사 테니스팀은 2019년에 창단과 함께 광주시와 연구 협약을 맺고 7년간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남훈 감독과 위원회 선수 등 선수단 6명은 꾸준한 성과를 내며 한국 실업 테니스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김광희 광주테니스협회장은 경기장을 둘러보며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회 운영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 진행을 부탁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를 대표해 지역 영고의 가치를 지켜주는 한국도로공사 테니스 선수단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선수단 모두 부상 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길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서울 원정 0대5 완패

프로축구 광주FC가 이영규 감독 부임이후 첫 패배를 당했다.

광주는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5로 완패했다.

프리트슨과 안혁주를 투입으로, 2007년생 공배현과 김용혁을 센터백으로 내세웠지만 연속 상승세를 탄 서울의 막강 화력에 역부족이었다.

광주는 전반 8분 프리킥 상황에서 손정범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줬다.

경기 내내 밀리던 광주가 전반 30분 이후 광주가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34분 유재호의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포문을 열며 반격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신창무가 전반 41분 시도한 원발 중거리 슈팅은 손정범 등 맞고 굴절됐다.

프리트슨이 전반 44분 우측에서 온 신창무의 크로스를 위협적인 헤더로 연결했으나 서

울 골키퍼 구성민 선방에 막혔고 2분 뒤 신창무의 크로스에 의한 박정인 헤더는 수비를 맞고 나갔다.

전반을 0-1로 마친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프리드슨을 빼고 권성운을 빼고 변화를 줬다. 그러나 후반 시작 1분 만에 정승원의 크로스에 의한 클리날라의 슈팅으로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다.

이어 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세 번째 실점을 허용했다. 우측에서 온 김진수의 크로스가 외국인 센터백 로스의 머리에 정확히 연결돼 실점을 막지 못했다.

광주는 후반 27분 클리날라의 일대일 기회를 막지 못해 네번째 골을 내주며 흔들렸다.

광주는 후반 33분 홍용준, 이민기, 정지훈을 동시에 투입하며 만회골 의지를 드러냈지만 후반 37분 문선민의 크로스에 의한 이승모의 컷백으로 또다시 실점하며 무너졌다. /박희중 기자

화순 청풍초 등 8개교 '스포츠버스'가 간다

전남도체육회, 대한체육회 공모 8곳 선정...강원 이어 전국 최대

화순 청풍초 등 8개교가 2026 스포츠버스 공모에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22일 "대한체육회 움직임은 체육관 스포츠버스 공모사업 결과 신안 압해초, 완도 약산중, 화순 청풍초, 완도 노화초, 신안 자은중, 해남 산이서초, 고흥 대서중, 무안 청계북초 등 도내 8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10개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로,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버스 사업은 다양한 체험 행사와 작은 운동회 개최 지원사업 등 2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버스 체험 행사는 개소당 체험 2-3시간으로 몽골텐트, 발판기, 음향기, 각종 이벤트 물품 등을 지원하며 스포츠버스 체험, 외부이벤트 체험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작은 운동회는 학교 운동회와 병행 개최되며, 단체·개인에게 운동회 제반 물품이 제공됨과 아울러 인바디 등 체력측정, 그리고 참가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 등도 지원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스포츠버스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지역 체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지난해 진행된 움직임은 체육관 스포츠버스 체험 프로그램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